

2025 국민이 함께하는 저작권 글 공모전(시)

제목

할아버지와 소프트웨어

아침 일찍 흰칠한 남자 둘이 철공소에 들어왔다.
 어디 공기업에서 하도급을 주려나 내심 기대를 했는데
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나왔단다.
 ‘불법’이라니! 지난달 납품한 철제의자가 잘 못 되었나?
 아니면, 앞마당에 쌓아둔 고철 덩어리에
 미륵반가사유상이라도 장물로 뒤섞여 있었던 걸까?
 아니, 그게 아니라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 때문이에요.
 소프트웨어요? 여기는 소프트한 건 없고, 죄다 하드한 건데요.
 자! 둘러보세요. 말랑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.
 때마침, 여직원이 출근해서 하는 말인즉,
 조립식 컴퓨터를 맞추면서 딸려온 한글과 엑셀 문제 같아요.
 엑셀은 모르겠고, 한글도 불법이 있나요?
 그럼 안 되지, 빨리 아무진 것으로 다시 사 오라며
 백발의 할아버지가 해진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신다.
 칠십이 넘도록 교통 딱지 한 장 안 끊었는데
 한글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제일 좋은 정품으로 써야지.
 남자 둘도 웃고 김 양도 웃는데 나만 심각한 아침이었다.